



메모리 불황 '끝'...수익성 확대 노린다

한주엽 powerusr@ 반도체 전문기자

2년 지속된 D램 공급과잉 해소
낸드플래시는 이미 가격 올라

2분기 매출 3조9409억...8% 늘어
SSD·신규 스마트폰 수요 긍정적

2년 가까이 지속된 메모리 공급과잉 상황이 해소될 조짐이다. 메모리 업계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김준호 SK하이닉스 코퍼레이트센터장(사장)은 26일 열린 2분기 실적발표에서 "지난 분기 말부터 D램 공급과잉 상황이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다"며 "긍정적 시장 상황은 3분기 이후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낸드플래시는 이미 (공급 부족으로) 가



격이 올랐다"며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요가 본격 확대됐고 하반기 출시될 신규 스마트폰(아이폰 등 추정) 저장 용량이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상황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박래학 D램마케팅그룹장(상무)은 "2분기 재고자산이 전 분기 대비 줄었다"며 "생산보다 출하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현상은 3분기에도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하이닉스는 '하반기 메모리 시장 회복'을 자신했다. 이미 지난 달 메모리 가격은 하락세를 멈췄다. 수요 공급이 균형을 이룬 덕에 보합-상승

세로 전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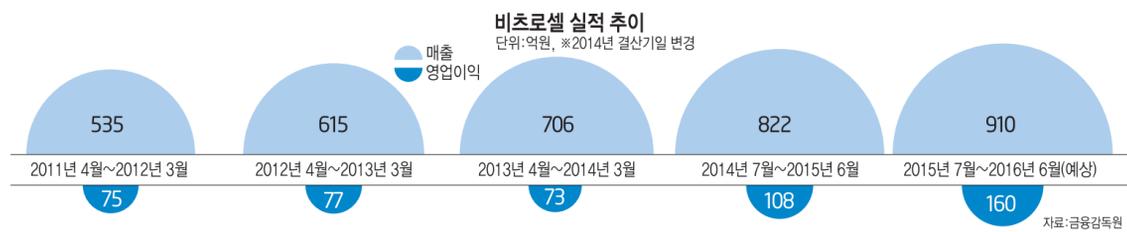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64기가비트(Gb) 멀티레벨셀(MLC) 낸드플래시는 5월 대비 10.89% 급등한 2.24달러를 기록했다. 낸드플래시 가격은 2014년 10월부터 계속 떨어졌다. 지난 2년여간 가끔씩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오르는 것은 없었다. 업계에선 낸드플래시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D램 가격도 하락세를 멈췄다. 6월 말 DDR3 4Gb D램 고저가격차는 전월과 동일한 1.25달러로 보합세를 기록했다. D램 값은 2014년 11월부터

더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김준호 사장은 "3분기는 전통적으로 신제품 수요가 많아 D램 수급 상황이 더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친 것이다.

전문가들은 메모리 상황이 호조세로 전환될 이유를 수요보다 공급 쪽에서 찾는다. PC, 스마트폰 등 IT 제품 판매는 눈에 띄 정도로 늘어나지 않았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차세대 공정 메모리 비중을 적극 확대하지 않았거나 못했기 때문에 공급 증가량이 적었다는 의미다.

이 같은 기준은 3분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박래학 상무는 "수익성을 확보하고 시장점유율 확대를 노리겠다"고 말했다. 공급량을 확 늘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빛의 속도로 크는 비츠로셀, 올 매출 1000억 '거뜰'

일차전지 제조기업 비츠로셀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미국 스마트미터 시장 등 연이은 해외 수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 1000억원 달성도 무난할 전망이다. 세계 1위 기업인 프랑스 샤프트와의 격차도 추월 범위내로 좁힌다.

26일 비츠로셀은 2015년 회계 기준(2015년 7월~2016년 6월) 매출액 910억2007만원, 영업이익 159억5884만원을 올렸다고 밝혔다. 당기순이익은 139억6416만원이다. 전년 대비 각각 10.8%, 47.5%, 38.6% 뛰었다. 지난 1987년 창사 이래 최대다.

미국, 유럽에서 스마트미터용 일차전지 수요가 대폭 늘었다. 전력 미터기와 더불어 수도, 가스 미터기 시장에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설비자동화 투자를 마치면서 생산성 증가에 따른 공정비용 절감 효과도 발생했다. 불량률 감소로 보수비용도 줄었다.

비츠로셀은 내년도 매출, 영업이익은 각각 1200억원, 190억원으로 전망했다. 당기순이익은

2015년 회계기준 매출 910억원
美 스마트미터 시장 등 해외 수주 ↑
'일차전지 1위' 샤프트와 격차 좁혀

160억원이다. 지난해 대비 3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미 예정된 수주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어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주력인 스마트미터용 시장에서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다. 미국에서 최대 고객사인 센서스 외 2개 이상 신규 고객을 확보했다. 유럽 납품 제품이 스펙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박셀로 전환되면서 관련 매출이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투자증권은 2016~2017년 회계 기준 비츠로셀 스마트미터용 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7.4% 늘어난 715억원으로 예상했다.

군수용 시장에서도 본격 성과가 나온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체에 201억원 규모 전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터키 유력 방산업체 로켓산과 열전지공급 계약을 맺는 신규 매출에 반영될 수주

를 연이어 확보했다. 군용 특수 전지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180% 늘어난 16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일차전지 분야 글로벌 1위 기업과의 격차도 더욱 좁어진다. 일차전지 시장은 리튬염화티오닐(Li-SOCI2), 리튬망간(Li-MnO2) 타입이 80%를 차지한다. 올해 시장 규모는 Li-SOCI2이 6300억원, Li-MnO2이 1조2000억원 규모다. 비츠로셀 주력은 리튬염화티오닐전지다. 이 시장에서 비츠로셀은 프랑스 샤프트에 이어 2위다. 올해 매출 목표치를 달성하면 매출 격차는 300억원 이내로 좁혀진다. 회사는 2019년까지 매출 2200억원, 영업이익 330억원을 달성해 글로벌 1위 자리에 오른다는 목표다.

김길중 비츠로셀 상무는 "스마트미터, 군수 시장에서 일차전지 수요가 빠르고 늘고 있고 해외 고객사 확보에 연이어 성공했기 때문에 중기 목표 달성 가능성이 크다"며 "일차전지 수요 분야 특성상 가장 중요한 품질과 가격을 모두 잡았기 때문에 보급실적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 전기전력 전문기자 snoop@etnews.com

항암제 넣은 '마이크로 로봇' 대장암·위암·간암 추적 치료 박석호 전남대 교수팀

국내 연구팀이 항암제를 넣은 암 치료용 면역 세포 기반 '마이크로 로봇'을 개발했다.

박석호 전남대 교수 연구팀은 항암제를 넣은 대식세포를 이동시켜 고형암을 추적·치료할 수 있는 직경 약 20마이크로미터(㎛) 크기 의료용 마이크로 로봇을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고형암은 일정한 형태와 모양을 갖춘 장기인 고형장기에 발생하는 암으로 대장암, 유방암, 위암, 간암, 췌장암 등이 있다. 대식세포는 면역세포로 동물 체내 모든 조직에서 면역을 담당하며 세포에 침입한 세균을 잡아먹는다.

그동안 고형암 치료에는 종양조직에 오래 잔류하는 나노파티클(NPs)을 사용한 약물 전달체를 혈관에 침투시켜 종양조직을 죽이는 방법을 사용했다. 나노파티클은 항암제 전달을 위해 생체에 적합한 폴리머 등으로 항암제를 코팅한 나노 구조체다.

연구팀은 동물 유래의 대식세포를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 로봇을 개발해 기존 나노파티클을 이용한 약물전달 체계와 면역 세포의 치료 방식을 극복했다.

대식세포에 항암제와 자성체, 폴리머로 구성된 나노파티클을 탑재해 마이크로 로봇을 제작했다.

대식세포 안에 들어간 자성체인 MNP와 약물이 다시 밖으로 방출되기 전에 대식세포 기반 마이크로 로봇을 외부 자기장을 이용해 종양조직 부위로 옮겨 암 조직에 약물을 방출하도록 유도했다.

송해경기자 hybrid@etnews.com

뉴스 브리핑

5G 테스트 솔루션 '웨이브 스케일' 공개

아드반테스트(대표 구로에 신이치로)는 테스트 시스템 'V93000'의 새 솔루션 '웨이브 스케일(Wave Scale)'을 발표했다.

'웨이브 스케일 RF' '웨이브 스케일 MX' 2종 모듈은 5세대 이동통신(5G)에 사용되는 RFIC 무선통신 혼성신호 IC를 효과적으로 동시 측정할 수 있다. 테스트 비용을 절감하고 출시 시기를 단축하는 데 기여한다.

웨이브 스케일은 휴대전화 통신 규격 LTE, LTE-A, LTE-A 프로를 위한 IC 테스트를 제공한다. LTE-M, WLAN, GPS, 지그비, 블루투스 IC와 사물인터넷(IoT) 테스트에 활용할 수 있다. 5G 전환에도 대응한다.

같은 기기에서 여러 RF 규격과 회로를 동시에 테스트할 수 있다. 기존에는 4사이트나 8사이트를 동시 테스트하지만 사이트당 하나의 RF 규격만 테스트가 가능하다. 웨이브 스케일 각 서비스 시스템은 8개 독립 포트가 일체형 RF 신호를 발생시켜 4대 계측기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모듈 한 장당 최대 32사이트 테스트를 지원한다.

최대 6GHz 속도, 200MHz 대역폭, 루프백 임베디드 보정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했다.

제5기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 출범

화학물질안전원은 27일 대전 유성구 본원에서 '제5기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이 출범식을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 50명으로 구성된 제5기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은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유해 화학물질 정보나 사제 폭탄 제조 방법 등을 상시 감시해 신고와 차단 활동으로 국민 안전을 지킨다.

2011년 9월 1기를 시작으로 출범한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은 제3기(2015년 6월)까지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화학물질 의심 사례를 실시간으로 찾아내 유해정보 1668건을 신고했다. 신고 정보는 화학물질안전원 검토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35건이 삭제됐다. 제4기(2015년 7~2016년 6월) 감시단 활동기간에는 유해정보 1368건을 신고해 135건이 삭제되는 성과를 거뒀다.

제5기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은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활동하며 인터넷에서 사제 폭발물이나 연막탄 제조 방법에 관한 영상과 게시물, 유해화학물질 유통 등 불법 정보를 상시 감시한다.

Times Microwave Systems
 ■ LMR Cable / Phase Cable / Surge Protector
Harbour Industries
 • 통신, 선박용 COAX, MIL WIRE & CABLE
 티엠에스알에프(주) T.02) 2659-1835 www.tmsrf.com

www.hangangups.com ups 문의 : alliuups@hanmail.net

델타그룹의 세계적인 전원관리 솔루션 델타 UPS

Ultron Series
3 Phase, Stand Alone, 160-500kVA

이제 한국에도
델타 UPS가 있습니다.

- Ultron Series UPS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커스터마이징 입력 및 출력 구성이 가능합니다.
- N+X 병렬 리던던시나 확장으로 크리티컬 부하에 높은 가용성과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 100% 균형이 잡히지 않은 부하조건에서도 완벽하고 연속적인 보호기능을 제공합니다.
- 최첨단 삼중레벨 인버터와 삼상 역률 교정 토폴로지로 최고의 효율과 역률을 자랑하는 UPS입니다.
- 내장매뉴얼 BYPASS로 서비스 유지보수 동안 시스템 가용성을 보장하는 "제로 다운타임"이 가능합니다.
- 델타 UPS는 안정적인 전원공급, 높은 전력효율, 적은 자본투자, 그리고 적은 운용비용을 보장합니다.

Ultron Series
3 Phase, Stand Alone, 20-500 KVA

40년간 UPS를 전문생산 T.(02) 2678-4455 DELTA UPS